

한화L&C, 그래핀 공동개발 착수

미국 XG사이언스와 MOU 체결 ... 탄소나노튜브보다 물성 안정적

한화L&C(대표 최웅진)는 미국 XG사이언스와 공동으로 탄소나노소재인 그래핀(Graphene) 개발에 나선다.

한화L&C는 XG사이언스와 탄소나노소재 개발과 기술 분야에서 협력기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7월 13일 발표했다.

양사는 XG사이언스가 보유한 미시간주립대학의 탄소나노소재 그래핀의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투자와 연구 개발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화L&C는 XG사이언스의 기술을 도입해 디스플레이, 터치스크린 등에 쓰이는 새로운 전자소재인 투명전극(ITO) 유리에 그래핀을 적용하는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그래핀은 2003년 개발된 새로운 탄소나노소재로 CNT(탄소나노튜브)보다 물성이 안정적이어서 반도체,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초강력 섬유, 배터리 등에 적용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7/13>